

임종룡, 금리 상승에 강력조치 예고

한은 단순매입·통안증권 축소, 기재부 국고채 2조2200억 축소... 은행 대출금리 지속 상승 중

시장금리의 가파른 오름세와 맞물려 은행 대출금리도 급상승 중인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리 상승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시장금리의 상승과 관련,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합동 비상금융상황대응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협조 ▲시장변동에 적기 대응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뛰는 금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글로벌 채권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그쳤다.

트럼프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예고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전망이 강해진 영향이다. 만기에 받을 원리금(원금+이자)이 정해진 채권의 특성상, 화폐가치의 하락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은 투자자에게 손실로 작용한다.

이에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자 공급이 넘치게 된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금리는 상승한 것이다.

국내 국채금리도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24일에는 전 구간에서 연고점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트럼프의 당선에 확정된 9월 1.671%였던 국채 10년 물 금리는 25일 2.184%로 51.3bp(1bp=0.01%포인트) 뛰었다.

한은이 2008년 이후 8년 만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채 단순매입



팝아트 입은 전기차 카셰어링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열린 카셰어링 페인팅 퍼포먼스에서 팝아티스트 찰스정이 시민들과 함께 전기차 레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제작된 레이 스페셜 에디션은 그린카의 셰어링카로 작가 미술장터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될 예정이다.

(직접매입)을 21일 단행했지만 영향은 미미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 만에 정부와 한은은 추가 조치에 나섰다. 한은은 통안증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기획재정부도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를 전월과 비교해 2조2200억 가량 줄이기로 했다.

정부와 한은의 조치에도 은행 대출금리의 상승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상승에 따라 은행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금리 등 시장금리가 오른데다,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려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자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 상황이다.

한은 가장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일반신용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4.31%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금융당국이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가계부채 억제책을 주문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연초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고정금리 모두 수직 상승했다.

특히 시장금리에 따라 하루 또는 월 단위로 바뀌는 고정금리의 상당은 5%가 눈앞이다.

국내 4대 주요은행(신한·KB국민·

KEB하나·우리 은행)의 2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고정금리 최저가 3.36%이고 변동금리 최저는 2.86% 수준이다.

앞서 21일 진중섭 금감위원장이 "대출금리는 은행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사회적 비난을 가져올 정도로 과도한 인상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자영업자 대출 등 각종 대출 금리들이 모두 상승 중"이라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몇 달이 지나야 안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공인인증서·보안매체 없이 banking업무

국민은행, 'KB튼튼간편인증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은 SK텔레콤과의 제휴를 통해 금융권 최초로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보안카드·OTP) 없이 banking업무를 할 수 있는 'KB튼튼간편인증 서비스'를 29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T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SK텔레콤 고객이면 누구나 유심(USIM)에 국민은행 전용 인증서를 저장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장된 인증서는 탈취와 변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알뜰폰 등 유심을 사용하지 못하는 휴대폰의 경우 스마트폰 CPU 칩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영역인

TZ(Trust Zone)를 사용하면 된다.

USIM이나 TZ에 저장된 KB튼튼간편인증서는 인증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려 매년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또 보안카드와 OTP를 사용하지 않고, PIN번호만으로 하루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체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과 이용은 안드로이드(OS 4.3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KB스타뱅킹 고객에게 우선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간편인증 서비스를 KT와 LGU+ 고객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

10월 항공여객 전년비 9.7%↑... 915만명

국제 여객 12.4%↑ 630만명·국내 여객 4.0%↑ 285만명

지난달 국내의 항공여객은 91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국제 여객과 국내 여객은 전년도 같은 달보다 각 12.4%와 4.0% 증가한 630만명과 285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제선은 개천절과 중국 국경절 연휴, 코리아세일페스타, 저비용항공사 공급력 증대 등으로 여객이 크게 증가했다.

10월 기준 국제여객은 2012년 409만명에서 2013년 434만명, 2014년 505만명, 지난해 56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비용항공사 공급력도 지난해 10월 106만명에서 지난 달 158만명으로 48.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일본(23.1%)과 동남아(17.8%) 등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인천(12.8%), 김해(17.5%), 대구(11.9%) 등 공항에서 여객 실적이 좋아졌는데 청주(-3.0%), 무안(-37.4%), 양양(-73.3%) 공항은 감소세였다.

국제선 여객 운송량의 국적항공사 분담률은 65.3%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 44.3%, 저비용항공사 21.0%다.

대한항공사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5%인데 비해 저비용항공사는 55.8% 크게 증가했다.

국내선 여객도 증가했다. 제주(4.4%), 김포(3.3%), 청주(7.4%) 공항 등 대부분의 여객 실적이 증가했는데 특히 여수공항(19.7%)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적 대형항공사 운송량은 12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다. 반면 저비용항공사는 162만명으로 8.6% 증가하면서 56.8%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9.8% 늘어난 37만톤으로 조사됐다.

국제화물(35만톤)은 유럽(14.7%), 동남아(11.9%) 화물과 여객 수하물 증가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0.4% 늘었고 국내화물(2만7000t)은 제주·김포·김해공항 화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3.5% 증가했다. /뉴시스

스마트폰 기업들 '웨어러블·액세서리' 강화 소비자 충성 유도

스마트폰 기업들이 모바일 제품의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웨어러블 기기와 액세서리 산업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웨어러블과 액세서리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애플은 휴대폰 자체에 대한 액세서리는 물론 관련 오디오 제품과 스마트 워치 등의 제품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올해 아이폰7을 출시할 때도 무선 이어폰 '에어팟'으로 액세서리의 혁신

을 강조했다. 아이폰과 연동해 사용이 가능한 애플워치도 애플의 핵심 무기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삼성 기어 S3'의 '프론티어'와 '클래식' 두 모델을 선보였다. GPS로 다양한 피트니스 활동을 측정하고 LTE 통신도 지원해 통화나 스트리밍 음악감상도 가능케 했다.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 액세서리 전용 온라인 사이트인 '삼성WA닷컴'을 오픈하기도 했다. ▲360도 서라운드와 LED조명을 갖춘 보틀 디자인

스피커 ▲케플 디자인 배터리팩 ▲USB LED 라이트 ▲트레이 디자인 무선충전 ▲랙탱글 디자인 이어폰 ▲스립 디자인 스피커 등을 판매한다.

LG전자는 오디오 기능을 특화한 스마트폰 제품이 많은 만큼 헤드셋, 이어폰 등의 액세서리에 치중해 내놓는 모양새다. 최근에도 꽃지 않는 형태의 귀걸이형 블루투스 이어폰 'LG포스'를 출시했다.

LG전자의 블루투스 헤드셋 '톤플러스'의 경우 최근 삼성전자가 인수한 해피와 협업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기업들이 액세서리 시장 넓히기에 치중하는 이유는 액세서리 선호도가 모바일 제품 구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판매 둔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이기기 위한 방책인 셈이다.

박형우 SK증권 연구원은 "웨어러블과 액세서리 산업 규모가 모바일 제품 충성도로 연결되므로 해당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애플 아이폰7의 이어폰 잭 제거를 시작으로 블루투스 시장도 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